

6.15 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통일을 앞당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 룡전과수농장과 덕성과수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 룡전과수농장과 덕성과수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 룡전과수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 전망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룡전혁명사적관과 새로 조성한 과수원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현대화추진정형과 과일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 과수의 고향인 북청군에 자리잡고있는 룡전과수농장은 지난 기간 나라의 과수업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고 하시면서 최근 몇해사이에 수백정보에 달하는 과수원을 새로 조성하고 내부망과 살림집건설, 과일나무모발화장공사를 끝낸것을 비롯하여 많은 일을 한 데 대하여 높이 치하하시였다.

농장에서 지난 시기 산비탈면들에 자름자름하게 널려있던 과수밭 대신 수백정보의 평지에 키낮은 우량품종의 과수원을 새

로 조성함으로써 과일생산에서 높은 생산성을 보장하면서도 종합적인 기계화를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은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농장에서 새 품종의 키낮은사과나무모를 다량생산해내며 토지정리와 전호식구 탕이파기, 물길공사, 지지대세우기 등 방대한 품을 요구하는 수백정보의 과수원조성사업을 자체의 힘과 기술, 로력으로 훌륭히 해낸것은 자랑할만 한 성과라고 하시면서 당정책관철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한 농장일군들과 근로자들, 지원자들의 투쟁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해방전에 보잘것없는 자그마한 과수원밖에 없던 룡전지구가 오늘은 대규모과원으로 전변되고 우리 나라에서 손꼽히는 과일생산지로, 과수업발전의 훌륭한 본보기로 전변되게 된것은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

을 다 바치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 덕성과수농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 전망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연혁소개실과 새로 조성한 과수원, 청년작업반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농장의 경영활동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농장에서 과수업을 하기에 좋은 지역적 특성에 맞게 과일생산에 대대적으로 늘이기 위한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2년사이에 수십정보의 현대적인 과수원을 훌륭히 꾸려놓은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특히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체의 힘으로 자기 지방의 기후풍토에 맞는 키낮은사과나무품종을 개발하였을뿐아니라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과원을 조성한것은 놀라운 기

적이라고 하시면서 농장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인 일본새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청년작업반의 농업과학기술지식선진실, 컴퓨터실, 취사장, 한증간, 집집승우리 등을 돌아보시면서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건물들을 깨끗하면서도 특색있게 건설한 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이 농장은 생산문화, 생활문화에서도 모범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수도 평양을 떠나 사회주의농촌으로 진출한 청년작업반의 김철순동무를 만나시어 고향은 어디인가, 일은 힘들지 않는가고 다정하게 물어주시며 청년작업반원들의 사업과 생활을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 룡전과수농장과 덕성과수농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과수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룡전과수농장과 덕성과수농장이 자리잡

고있는 북청군과 덕성군은 과수업에 유리한 자연지리적조건과 튼튼한 토대, 풍부한 경험과 전통을 가지고있으므로 발전 전망이 대단히 크다고 하시면서 이 지역을 우리 나라 굴지의 현대적인 대규모과일생산기지로 전변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특히 북청군의 수천정보에 달하는 포전들을 하나의 대과수원으로 전변시키자는 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이 사업은 아름답고 방대하지만 우리 인민의 무한대한 정신력과 강위력한 자립적경제 토대가 있기에 짧은 기간에 해낼수 있다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서 룡전과수농장과 덕성과수농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과일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인민의 만복이 넘쳐나는 강성대국의 품만한 래일을 하루빨리 앞당겨오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로씨야련방 대외정보국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5월 17일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엠. 예. 프라드코브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련방 대외정보국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우동측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석상에서 엠. 예. 프라드코브단장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과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께 성의껏 준비해 온 선물을 드리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이에 사의를 표하시고 대표단일행과 따뜻한

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접견을 마친 후 손님들을 위하여 만찬을 마련하시였다.

만찬에는 대표단일행과 우리 나라 주제 로씨야련방대사관 공사의 교관들이 초대되였다.

우동측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함께 참가하였다.

만찬회는 화기에 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본사기자

천년강국의 역사를 빛내여주시어

평양시 교외인 려포구역에는 고구려건국시조 동명왕의 묘가 있다.

지금으로부터 18년전에 개건된 동명왕릉은 오늘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천년강대국 고구려의 역사를 떠올리게 한다.

원래 동명왕의 무덤이 지금의 자리에 자리잡은것은 427년 고구려가 수도를 평양으로 정하면서 옮겨온것이다. 그때부터 당대 사람들은 물론 후세들도 동명왕의 무덤을 잘 보존했고 계도 지내군했다. 그러나 일제가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동명왕의 무덤을 도굴, 파괴하면서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그러다가 후세에 와서 이것이 고구려시조왕의 무덤인것 알수 없게 되고 사람들속에서 반신반의하는 현상들도 있었다.

역사의 풍운속에 버릴 만고 세월의 이끼에 파묻힌 동명왕릉을 다시 찾아주고 원래의 모습대로 꾸려서 빛을 뿌리게 해주신 분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다.

어비수령님께서 여러 차례나 동명왕릉을 찾으신 력사자들에게 유적발굴과 조사연구를 심화시키도록 하시였고 고구려시조왕릉담개 풀위기에 개건하도록 이끄시였다.

당시 학계에서는 조선을 강점했던 일제에 의해 유물이 거의 다 류실되고 오랜 세월 방임해두어 왕묘로서의 형태가 희미해졌기때문에 왕릉확정을 놓고 논란이 분분했다.

그러한 때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시조왕에 대

한 고구려사람들의 숭배열과 신조를 섬기는 풍속에 비추어 볼 때 동명왕릉의 실체가 분명하다는데 대해 사리정연한 논거를 들어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민족의 역사를 정확히 평가하고 풍부히 하도록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는 절세위인들의 보살핌속에 전면적이고 구체적인 발굴과 조사연구가 진행된 결과 동명왕릉의 존재가 고증확증되게 되었고 왕릉개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1992년 3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건중인 동명왕릉사관을 보시고 하나의 고적을 복구해도 과학진실성이 철저히 담보되고 역사적가치가 있게 최상의 수준에서 질적으로 건설하도록 할데 대해 지적하시였다. 기원 5세기까지는 왕릉을 돌무덤으로 만들고 그 후부터는 흙무덤을 만들었다는데 대해 이르시며 무덤기단을 돌로 쌓고 봉토는 흙으로 하도록 할데 대해서도 가르쳐주시였다.

그로부터 두달후에 건설현장을 몸소 찾으시고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수령님께서 다시금 왕릉개건에서 나서는 방도적문제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릉의 높낮이와 너비는 얼마로 하고 봉토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며 통주변 조각들의 크기와 위치를 정하는 문제도 통형성과 건축시공과 관련된 크고작은 문제도 이르기까지 세세히 가르쳐주시는 수령님이시다.

어비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왕릉의 높이를 정하는 공사에서부터 통형의 호랑이조각들, 상돌, 석등, 향두석을 앉히는 건축형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성요소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지도록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였다. 그뿐 아니라

릉의 제당 뒤쪽에 있는 못을 잘 꾸리고 주변의 소나무를 잘 보존하고 여러 수종의 나무를 많이 심어 왕릉의 풍유를 더 잘 돋구도록 하시였다. 이렇게 되어 동명왕릉은

마침내 고구려의 력사와 기상이 비친 시조왕릉으로 손색없이 개건되게 되었다.

1993년 5월 어느날 수령님께서 완공된 동명왕릉을 찾으시였다. 몇달전 마감고비에 이른 건설장을 찾으시고 이제는 선조들이 시조왕 하나 모실 줄 모른다고 후손들이 욕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동명왕릉이 훌륭히 개건되고 있는데 대해 기쁨을 금치 못해하신 그이께서 또다시 왕릉을 찾으시였다.

공치수려한 소나무숲속에 자리잡은 웅장한 동명왕릉은 아침햇빛을 받아 한쪽의 그림처럼 안겨지고있었다.

현지에 이르신 그이께서는 왕릉이 잘 건설되였다고 다시금 높이 평가하시었고 동명왕과 고구려의 력사에 대해 상기하시면서 동명왕릉을 잘 꾸리고 사람들에게 고구려에 대해 널리 알려주도록 할데 대해 강조하시였다. 왕릉을 개건하면서 발굴한 우물자리와 보습, 물방아, 단지, 호랑이와 사슴의 뼈 등 여러

점의 유적유물들을 보이고는 고구려의 력사를 더욱 풍부히 해줄수 있게 된데 대해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유적유물사료들을 주제적립장과 력사주의원칙에서 정확히 고증하도록 하고는 명소 수많은 옛 문헌들과 력사자료들을 연구도 하시고 여러차례 현지도 찾으시며 그 개건과 보존에 그러할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신 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그이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을 높이 받드는 장군님의 보살핌속에 동명왕릉은 천년강국의 역사를 전하는 나라의 귀중한 국보로 빛이 나게 되였다.

동명왕릉의 개건은 민족의 력사를 중히 여기고 빛내주시려는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로고와 령도의 결실이었다. 오늘 공화국각지에는 민족의 력사와 넋이 깃든 력사문화유산들이 훌륭히 보존되어 자라나는 후대들에게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있다.

본사기자 리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최고인민회의 제 9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에서 조국통일5개방침을 제시하신 때로부터 21년이 되어온다.

이날을 맞으며 우리 겨레는 어비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받들어 조국통일위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 애국의 열의에 넘쳐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제 79(1990)년 5월 24일에 제시하신 조국통일5개방침은 통일의 주제인 전체 조선민족의 힘과 지혜를 총 발동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일관되어있으며 민족의 통일념원과 경제발전의 추이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현실적인 애국애족의 방안이다.

로작이 나온 당사로 말하면 내외분렬주의세력의 대결책동을 짓부시며 겨레의 통일운동이 전민족적범위에서 날로 더욱 힘차게 벌어지고있었다.

남조선인민들은 파쇼당국의 가혹한 탄압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의 구호를 높이 들고 성스러운 투쟁에 용약 떨쳐나섰다.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은 우리 민족의 높은 자주정신과 꺾을수 없는 통일의지를 뚜렷이 보여준것으로 하여 세계 진보적인인민들의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성된 이러한 정세의 요구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조성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조국통일5개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조국통일5개방침에는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평화환경을 마련하는 문제,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북과 남사이의 자유무역과 전면개방을 실현하는 문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는 원칙에서 대외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대한 문제, 조국통일을 위한 대화를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 조국통일을 위한 문제를 제기하시였다.

조국통일5개방침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겨레는 보다 뚜렷한 투쟁목표와 방도를 가지고 조국통일운동에 보다 힘차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었다.

조국통일을 자신앞에 부과된 최대의 과업으로 간주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강령을 발표하시면서 우리 겨레에게 단결의 위대한 기치를 안겨주시였으며 생의 마지막시기에는

력사적인 조국통일문건을 보아주시는 등 통일을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사상과 령도업적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조국통일3대원칙으로 정립하시어 우리 겨레가 통일의 길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불멸의 대강을 마련해주시였다. 그리고 분렬사상 처음으로 두차례의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어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6.15공화선언과 10.4선언을 겨레에게 안겨주시였으며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전진하는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펼쳐주고 이끌어오시였다.

지금 우리 겨레앞에는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하루빨리 완성해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남조선보수당국은 평화와 통일을 념원하는 겨레의 의사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반민족적인 동족대결정책과 북침전쟁책동에 계속 혈안이 되어 날뛰면서 북남관계를 최악의 위기에 몰아넣고 조선반도에 전쟁위험만을 조성하고있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려는 공화국의 대화제의를 끝끝내 거부하고 동족대결로 미쳐 날뛰는 남조선당국의 반민족적책동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커다란 격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현실은 현 남조선당국에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갈 의향이 꼬물꼬물도 없으며 오직 대결과 전쟁만을 추구하고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북과 남이 합의하고 온 겨레와 세계의 적극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고있는 6.15공화선언과 10.4선언은 오늘날도, 래일도 변함없는 조국통일의 대강이다.

북남공동선언들을 리해해나갈 때 나라의 통일을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더욱 단결하여 통일대진군을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자주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하루빨리 이룩하고야말것이다.

림소영

위인의 유모아

주제 92(2003)년 2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군대의 어느한 군사학교를 찾으시였을 때였다. 학교 급양실습장에 들리신 그이의 만면에 환한 미소가 어렸다. 식탁에는 갖가지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올라있었다. 갑자기 음식만 하여도 국수, 지짐, 송편, 파베기 등 갖가지였고 그밖에 각종 식찬들을 비롯하여 마음만 먹으면 군인들이 자체로 만들어 먹을수 있는 100여가지나 되는 음식모조품들이었다. 장군님께서는 《음식》들을 손수 만져도 보시며

놀부가 보았더라면

참 신동하게 잘 만들었다고, 음식모조품들을 쫓길렐해놓는것을 보니 그전에 놀부가 돈이 아까와 자기 부모제상에 음식이름을 쓴 종이장을 올려놓고 제사를 지냈다는 이야기가 생각나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놀부가 살아서 이것을 보지 못하면 너무 욕심이 나서 통채로 가지자고 헛덤 버렸을것이라고, 예술영화 《춘향전》에 변학도가 진리 수성관을 차려놓고 닭다리를 뜯어먹는 장면이 있는데 그 상도 이렇게 푸짐하지는 못하였다고 말씀하시

였다. 장군님의 말씀을 들으며 지휘관들은 형제간의 의리도 없고 각쟁이인 놀부와 포악무도한 변학도를 생각하였다.

인상깊은 영화장면들을 그려보는 그들에게는 음식모조품들의 진가가 더욱 선명히 안겨졌다. 그리고 자기들의 교육사업형에 대해 기뻐하시며 영화의 장면들과 비교하여 하신 장군님의 말씀에 군인들의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도록 해야 한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있음을 느꼈다. 본사기자

조국 평화통일위원회결성 50돐기념 평양시보고회 진행

조국평화통일위원회결성 50돐기념 평양시보고회가 13일 중앙로동자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보고회는 《김일성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였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결성 50돐에 즈음하여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전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전당, 전군, 전민이 당의 선군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진군을 힘차게 벌리고있으며 온 겨레가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가고있는 격동적인 환경속에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결성 50돐을 맞이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축하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조국통일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고 선군의 기치밑에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해나가는 길에서 결성 50돐을 맞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제 50(1961)년 5월 13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결성해주시였으며 조국통일3대원칙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고 축하문은 강조하였다.

축하문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비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시어 통일위업실현을 위한 강령적인 로선과 방침들을 제시하시였으며 주제 73(1984)년 10월 9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을 내오도록 하시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사적인 6.15공화선언과 10.4선언을 마련하시어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주시였으며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고 축하문은 강조하였다.

축하문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지난 50년동안 자랑스러운 길을 이어온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우리 당의 조국통일로선과 정책을 받들고 자주통일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대화와 협력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 북남관계를 전진시키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범위

에서 확대발전시켜나가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축하문은 강조하였다.

축하문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해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을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묶어세우며 반통일세력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분쇄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데 적극 기여한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우리 당의 조국통일사상과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출기차게 벌려 통일위업수행을 앞당기는데서 커다란 공적을 이룩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인 김양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결성 50돐을 뜻깊게 기념하는 우리 인민은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조국통일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던 지난 세기 60년대 초의 내외정세에 대하여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

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조국통일로선과 정책을 집행하고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제반문제들을 협의실천하며 전민족적인 통일운동을 적극 추진시켜나가기 위한 권위있는 조직체로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결성 해주시였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결성됨으로써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조직화하고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였으며 6.15공화선언과 10.4선언을 마련해주시어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확고한 통일리정표를 가지고 투쟁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시는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우리 당의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파시하며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르침을 주시였으며 통일을 위한 길에서 삶을 빛내이도록 따듯이 보살펴주시였다.

보고자는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시기 위하여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승리적으로 전진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였으며 6.15공화선언과 10.4선언을 마련해주시어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확고한 통일리정표를 가지고 투쟁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시는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새 세기에 들어서면서 조국통일운동은 전례없이 앙양되었으며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자기 사업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의 불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조직전개함으로써 민족의 단합과 통일위업실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책동으로 쫓겨 발전하던 북남관계가 좌절되고 대결과 전쟁위험이 격화되고있는 오늘날의 첨예한 정세속에서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우리 당의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들을 취하면서 해내외의 모든 동포들을 민족대단결과 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보고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길어진 지난 50년의 자랑스러운 정은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신 어비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애국헌신적 빛나는 력사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주시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으며 독창적인 선군혁명령도로 사회주

의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겨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보고자는 오늘 우리 민족앞에는 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책동을 짓부시어 조국통일과 평화변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 민족분렬의 력사를 끝장내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다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업적을 결렬히 옹호하고수고하고 조국통일3대원칙을 비롯한 주제적인 통일로선과 방침들을 철저히 관철해나갈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조국통일의 대강인 6.15공화선언과 10.4선언을 자주통일의 기치로 변함없이 추켜들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통일로선을 틀어쥐고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며 조국과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백령도를 제2의 연평도로 만들려 한다

얼마전 서해의 백령도에서는 미군과 남조선군의 해병대참모전술도라는 것이 벌어졌다.

이 전쟁모의관에서 호전세력은 그 누구의 《기습상륙침투》를 운운하며 오는 7월에 백령도에서 미군, 남조선군의 연합해병대훈련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그들은 백령도현지상태를 직접 조사해보며 이 섬에 미군배치도 꾀하고있다.

조선반도정세를 더욱 긴장경화해로 몰아가는 범죄행위가 아닐수 없다.

지난 시기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은 미군과 함께 북침선제공격을 노린 연합해병대훈련을 띠어 벌려왔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조선대학교에서 침체하게 대처되어있는 조선서해 5개 섬일대, 그 것도 공화국의 령도가 뻗어 보이는

백령도일대에서 도발적인 연합해병대훈련이 벌어지게 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것은 긴장한 이 지역정세를 악용하여 어떻게 해서나 제2의 연평도사건을 일으키고 이를 구실로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아보려는 음흉한 속심의 산물이다.

간파할수 없는것은 호전세력들에 의해 서해지역이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전초기지, 선제공격기지로 지정사실화되고있는것이다.

연평도사건이후 남조선호전광들은 거기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을 대신 오히려 무력증강책동과 군사적도발소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다.

그들은 그 무슨 《도발》과 《옹졸》을 떠들며 백령도와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개 섬일대에 북침선제공격을 위한 대담습도무기, 지대공

미사일, 신형대포병레이다, 다련장 로켓, 《스파이크》형미사일 등을 비롯한 공격기술품비들을 대대적으로 늘이려고 꾀하는 한편 해병대병력 2,000여명을 증강하는 방안도 확정하고 실천에 옮기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남조선의 호전세력은 새로운 무장총들을 노린 군사적도발행위도 꺼리낌없이 감행하고있다.

지난 3월과 5월에 진행된 서해지역에서의 도발적인 포사격훈련과 계속되는 반공화국심리모략전은 바로 그 일환이다.

모든 사실들은 남조선호전세력이 북침전쟁의 서막을 서해지역에서의 무장총들에서 찾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그들이 《서북도서는 북의 목을 노리는 비수》와 같은 전략적요충지

라느니, 《공고한 《한》미 연합작전을 통해 적의 어떤 도발도 현장에서 즉각 종결하는데 해병대가 모범이 될것》이라고 떠들어댄것도 우연한것이 아니다.

어제는 연평도에서 오늘을 백령도에서 전쟁소동을 확대강화하려는 남조선호전세력의 범죄적책동은 공화국을 반대하는 그들의 침략전쟁기도가 극도에 달하고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었고있다. 이러한 사태는 더이상 묵과되어서는 안된다.

공화국의 군대는 자기의 존엄을 건드리는자에 대해서는 추호의 양보도 모른다.

남조선호전광들은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도발이 가져올 파괴적후과를 명실하고 분별없이 날뛰지 말아야 한다.

김철호

그 무엇을 기대할것도 없다

지금 북남관계는 전쟁경계의 최악의 상태에 처한 북남관계의 운명은 아랑곳없이 오로지 저들의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핵소동과 동족대결소동을 합리화하고 계속 벌려나가기에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단말마적 발악이다.

오늘의 엄중한 사태가 보여주듯이 6.15공동선언발표 후 쫓겨 발전하던 북남관계가 대결과 악화의 길만을 걸어온것은 남조선에서 리명박보수 《정권》이 등장하면서 부터이다. 그들이 집권초기부터 《잃어버린 10년》을 떠들며 들고나온 《비핵, 개방, 3000》이라는것만 놓고 보더라도 그 누구의 《핵완전포기》와 《개방》을 북남관계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극히 황당무계하고 주제넘은 녀두리로서 민족의 이익을 세에 팔아먹고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며 북남관계를 파괴해나가기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지금까지 공화국은 남조선보수당국의 광란적인 동족대결책동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북남관계의 파괴적후과를 가시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에 대한 민족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해나가기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원칙고수》니, 《진정성결여》니 뉘니 하면서 북

남관계개선을 위한 동족의 손길을 한사코 뿌리쳤으며 내의여론의 규란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대화》니, 《통일》이니 하고 말장난만 피우면서 여론을 기만해나갔다.

북남관계문제는 조국통일위업의 전도와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그 어떤 특정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시될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명박 《정권》은 민족의 이익보다 동족을 해칠 불순한 목적지향성을 위해 북남관계를 서슴없이 희생시키고있다.

현 남조선집권자가 해외에 나가서도 과거의 반공화국도파도 그 누구의 《핵완전포기》와 《개방》을 북남관계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극히 황당무계하고 주제넘은 녀두리로서 민족의 이익을 세에 팔아먹고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며 북남관계를 파괴해나가기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지금까지 공화국은 남조선보수당국의 광란적인 동족대결책동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북남관계의 파괴적후과를 가시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에 대한 민족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해나가기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원칙고수》니, 《진정성결여》니 뉘니 하면서 북

남관계개선을 위한 동족의 손길을 한사코 뿌리쳤으며 내의여론의 규란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대화》니, 《통일》이니 하고 말장난만 피우면서 여론을 기만해나갔다.

북남관계문제는 조국통일위업의 전도와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그 어떤 특정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시될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명박 《정권》은 민족의 이익보다 동족을 해칠 불순한 목적지향성을 위해 북남관계를 서슴없이 희생시키고있다.

현 남조선집권자가 해외에 나가서도 과거의 반공화국도파도 그 누구의 《핵완전포기》와 《개방》을 북남관계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극히 황당무계하고 주제넘은 녀두리로서 민족의 이익을 세에 팔아먹고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며 북남관계를 파괴해나가기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지금까지 공화국은 남조선보수당국의 광란적인 동족대결책동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북남관계의 파괴적후과를 가시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에 대한 민족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해나가기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원칙고수》니, 《진정성결여》니 뉘니 하면서 북

남관계개선을 위한 동족의 손길을 한사코 뿌리쳤으며 내의여론의 규란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대화》니, 《통일》이니 하고 말장난만 피우면서 여론을 기만해나갔다.

북남관계문제는 조국통일위업의 전도와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그 어떤 특정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시될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명박 《정권》은 민족의 이익보다 동족을 해칠 불순한 목적지향성을 위해 북남관계를 서슴없이 희생시키고있다.

현 남조선집권자가 해외에 나가서도 과거의 반공화국도파도 그 누구의 《핵완전포기》와 《개방》을 북남관계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극히 황당무계하고 주제넘은 녀두리로서 민족의 이익을 세에 팔아먹고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며 북남관계를 파괴해나가기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지금까지 공화국은 남조선보수당국의 광란적인 동족대결책동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북남관계의 파괴적후과를 가시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에 대한 민족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해나가기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원칙고수》니, 《진정성결여》니 뉘니 하면서 북

《5. 18정신 계승, 남북공동선언 이행, 현 정권 심판!》

광주에서 격렬한 반 《정부》투쟁 전개

5.18광주인민봉기 31돌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15일 광주에서 격렬한 반 《정부》투쟁이 벌어졌다.

조선대학교에서 《5.18정신 계승, 남북공동선언 이행, 리명박정권 심판!》 자주통일대행진이 있었다.

조국통일법민족연합 남측

본부, 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6.15한마음통일산악회 등 각계 단체성원들과 그리고 전남대학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 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주한미군 물아내고 평화협정 체결하

자》, 《6.15, 10.4선언 이행하라》, 《리명박정권 심판하고 민족생존권 쟁취하자》라고 쓰여진 구호판들을 들고 금남로까지 행진하였다.

그들은 구호들을 웨치고 선전물을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며 5.18광주봉기자들의 정

신을 이어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사대매국, 반통일, 반민주, 반인민적피악을 쌓아온 현 당국을 반드시 심판할것을 호소하였다.

금남로에서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민주로총, 전국녀성연대,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정당, 단체성원들의 참가하에 《5.18민주항쟁 31주년 정신계승 국민대회》가 진행되었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5월봉기자들의 피로 이룩된 민주화의 소중한 싸움이 현 《정권》하에서 모조리 짓밟혔다고 개탄하였다.

그들은 지금 모든 인민들

본사기자

이 《정권》교체를 원하고있으며 리명박과 같은자를 다시는 《대통령》으로 선거하지 않을것을 다짐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인민들이 민주, 진보세력의 단결을 원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국인의 힘으로 민주정부, 복지정부, 통일정부를 반드시 이루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망월동묘지에서는 미제와 군사파쇼독재정권에 의해 무참히 학살된 광주봉기자들을 추모하는 모임이 있었다.

본사기자

이 《정권》교체를 원하고있으며 리명박과 같은자를 다시는 《대통령》으로 선거하지 않을것을 다짐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인민들이 민주, 진보세력의 단결을 원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국인의 힘으로 민주정부, 복지정부, 통일정부를 반드시 이루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망월동묘지에서는 미제와 군사파쇼독재정권에 의해 무참히 학살된 광주봉기자들을 추모하는 모임이 있었다.

본사기자

이 《정권》교체를 원하고있으며 리명박과 같은자를 다시는 《대통령》으로 선거하지 않을것을 다짐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인민들이 민주, 진보세력의 단결을 원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국인의 힘으로 민주정부, 복지정부, 통일정부를 반드시 이루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망월동묘지에서는 미제와 군사파쇼독재정권에 의해 무참히 학살된 광주봉기자들을 추모하는 모임이 있었다.

본사기자

이 《정권》교체를 원하고있으며 리명박과 같은자를 다시는 《대통령》으로 선거하지 않을것을 다짐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인민들이 민주, 진보세력의 단결을 원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국인의 힘으로 민주정부, 복지정부, 통일정부를 반드시 이루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망월동묘지에서는 미제와 군사파쇼독재정권에 의해 무참히 학살된 광주봉기자들을 추모하는 모임이 있었다.

본사기자

《자유무역협정》 체결저지를 위한 연대투쟁 선언

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남조선민주로총과 미국노동총동맹산업별회의가 16일 서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지고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 체결저지를 위해 연대투쟁을 벌릴것이라

고 선언하였다.

단체들은 《자유무역협정》은 중소기업의 이익만을 절대적으로 대변해준다고 비난하였다.

협정체결을 반대하는 로동계의 목소리를 알리며 각

계 시민사회단체들과 연합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저지를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려나갈것이라고 단체들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계 시민사회단체들과 연합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저지를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려나갈것이라고 단체들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시위를 막으려 한 괴한들은 누구인가

남조선신문의 글

남조선신문 《한겨레》가 12일 《동포시위 막으려 한 괴한들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사실을 실었다.

사실은 제도이월란드동도들이 리명박의 도이월란드행 각기간 4대강공사중지 등을 요구하여 시위투쟁을 벌린 사실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런데 리명박이 회담장소에 도착하기 직전 검은색양복차림을 한 괴한들이 나타나 시위대를 가로막고 《차단벽》을 설치하려다가

도이월란드경찰로부터 저지를 당했다고 사실은 폭로하였다.

사실은 이번 사건이 결코 우연히 발생한것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괴한이 일어나자 청와대가 《청와대경호실직원이 시위를 막았다는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발뺌하였지만 괴한들의 모습이나 행동으로 볼 때 이러한 주장은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사실은 주장하였다.

사실은 리명박의 정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남조선내에서뿐아니라 해외에서도 자못 높다고 하면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힘으로 억누르는것은 국제적망신만을 초래할뿐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사실은 리명박의 정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남조선내에서뿐아니라 해외에서도 자못 높다고 하면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힘으로 억누르는것은 국제적망신만을 초래할뿐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이러한 학살만행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고 남조선의 진보적인 단체들과 각계층 인민들은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을 유네스코기록유산에 등록하여 력사에 남기려 했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그 출로를 반공화국대결소동에서 찾고 여기에 광분하고있는 것이다.

보수당국이 그 진상이 만천하에 드러난 광주학살만행까지 외곡하여 북을 모함하고있는것을 보면 동족대결을 위해서 별의별짓을 다하는 그들의 범죄적정체를 알고도 남음이 있다.

현실은 현 남조선당자들이 헤쳐나올수 없는 통치위기의 리랑속에 깊숙이 빠지면 빠질수록 반공화국대결소동에 더욱 미쳐 날뛰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방미월

이러한 학살만행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고 남조선의 진보적인 단체들과 각계층 인민들은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을 유네스코기록유산에 등록하여 력사에 남기려 했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그 출로를 반공화국대결소동에서 찾고 여기에 광분하고있는 것이다.

보수당국이 그 진상이 만천하에 드러난 광주학살만행까지 외곡하여 북을 모함하고있는것을 보면 동족대결을 위해서 별의별짓을 다하는 그들의 범죄적정체를 알고도 남음이 있다.

현실은 현 남조선당자들이 헤쳐나올수 없는 통치위기의 리랑속에 깊숙이 빠지면 빠질수록 반공화국대결소동에 더욱 미쳐 날뛰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방미월

이러한 학살만행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고 남조선의 진보적인 단체들과 각계층 인민들은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을 유네스코기록유산에 등록하여 력사에 남기려 했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그 출로를 반공화국대결소동에서 찾고 여기에 광분하고있는 것이다.

보수당국이 그 진상이 만천하에 드러난 광주학살만행까지 외곡하여 북을 모함하고있는것을 보면 동족대결을 위해서 별의별짓을 다하는 그들의 범죄적정체를 알고도 남음이 있다.

현실은 현 남조선당자들이 헤쳐나올수 없는 통치위기의 리랑속에 깊숙이 빠지면 빠질수록 반공화국대결소동에 더욱 미쳐 날뛰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방미월

이러한 학살만행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고 남조선의 진보적인 단체들과 각계층 인민들은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을 유네스코기록유산에 등록하여 력사에 남기려 했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그 출로를 반공화국대결소동에서 찾고 여기에 광분하고있는 것이다.

보수당국이 그 진상이 만천하에 드러난 광주학살만행까지 외곡하여 북을 모함하고있는것을 보면 동족대결을 위해서 별의별짓을 다하는 그들의 범죄적정체를 알고도 남음이 있다.

현실은 현 남조선당자들이 헤쳐나올수 없는 통치위기의 리랑속에 깊숙이 빠지면 빠질수록 반공화국대결소동에 더욱 미쳐 날뛰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방미월

치졸한 모략극

을 선포하고 환각제를 먹인 《공수특전대》를 광주에 내몰아 도처에서 야수적인 탄압과 학살만행을 감행하였다. 광주학살만행시 살인마들이 감행한 죄행은 그 야만성과 잔인성에 있어서 세상에 다시 없는 치명적인 것이었다.

《화려한 휴가》라는 작전명칭 밑에 《공수특전대》의 살인마들은 《광주시민 70%를 죽여도 좋다》

내어 꿈틀거리고 피덩이를 총창으로 찌르는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야수적만행까지 감행하였다.

이렇게 광주시를 《피의 목욕탕》으로 전변시킨 살인마들의 학살만행이 얼마나 광증한것이였으면 세계의 방송사들이 광주학살장면을 TV로 방영하기에 앞서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화면앞에 다가서지 말라고까지 경고했는가.

이러한 학살만행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고 남조선의 진보적인 단체들과 각계층 인민들은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을 유네스코기록유산에 등록하여 력사에 남기려 했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그 출로를 반공화국대결소동에서 찾고 여기에 광분하고있는 것이다.

보수당국이 그 진상이 만천하에 드러난 광주학살만행까지 외곡하여 북을 모함하고있는것을 보면 동족대결을 위해서 별의별짓을 다하는 그들의 범죄적정체를 알고도 남음이 있다.

현실은 현 남조선당자들이 헤쳐나올수 없는 통치위기의 리랑속에 깊숙이 빠지면 빠질수록 반공화국대결소동에 더욱 미쳐 날뛰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방미월

이러한 학살만행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고 남조선의 진보적인 단체들과 각계층 인민들은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을 유네스코기록유산에 등록하여 력사에 남기려 했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그 출로를 반공화국대결소동에서 찾고 여기에 광분하고있는 것이다.

보수당국이 그 진상이 만천하에 드러난 광주학살만행까지 외곡하여 북을 모함하고있는것을 보면 동족대결을 위해서 별의별짓을 다하는 그들의 범죄적정체를 알고도 남음이 있다.

현실은 현 남조선당자들이 헤쳐나올수 없는 통치위기의 리랑속에 깊숙이 빠지면 빠질수록 반공화국대결소동에 더욱 미쳐 날뛰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방미월

이러한 학살만행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고 남조선의 진보적인 단체들과 각계층 인민들은 5.18민주화운동기록물을 유네스코기록유산에 등록하여 력사에 남기려 했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그 출로를 반공화국대결소동에서 찾고 여기에 광분하고있는 것이다.

보수당국이 그 진상이 만천하에 드러난 광주학살만행까지 외곡하여 북을 모함하고있는것을 보면 동족대결을 위해서 별의별짓을 다하는 그들의 범죄적정체를 알고도 남음이 있다.

현실은 현 남조선당자들이 헤쳐나올수 없는 통치위기의 리랑속에 깊숙이 빠지면 빠질수록 반공화국대결소동에 더욱 미쳐 날뛰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방미월

살인적인 로동에 내몰리던 로동자 사망, 로동자들 항의

남조선에서 3일 파주건설업체에서 일하던 건설로조 조 포항지부 로조원 조명수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일지리를 찾아 해마다가 지난 3월 이 건설업체에 취업한 그는 열악한 로동조건속에서 하루 17시간이상의 로동을 강요당하였다.

이 업체는 지난해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내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악명을 떨쳤다.

지금같은 건설현장에서 지난 4월에도 50대 녀성로동자가 파로로 목숨을 잃었으며 5월에는 로동자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

그러나 그때마다 업주측은 저들의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사죄할 대신 오히려 본인의 부주의니 뉘니 하며 책임을 회피하여왔다.

악질건설업체의 살인행위에 격분한 남조선의 건설

산업연맹소속 로동자들은 13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건설현장들에서 로동자들이 죽음을 강요당하고있는 비참한 현실을 개탄하였다.

업주측이 마땅히 책임을 지고 유가족들에게 사죄, 보상할것을 그들은 요구하였다.

그들은 전지역의 건설로동자들이 억울하게 숨진 로동자들의 피의 대가를 받아내기 위해 싸울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기자회견참가자들은 《끝까지 싸워서 피해자의 한을 풀자!》, 《건설로동자 사망사고 사죄하라!》, 《유가족에게 사죄하라!》, 《유가족에게 사죄하라!》, 《유가족에게 사죄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업주들의 살인범죄행위를 단죄하였다.

본사기자

남조선에서 《북풍》이 또 터져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대지에 푸름이 짙어가고 만물에 활력이 넘쳐나는 따스한 계절인데 울세년스러운 《북풍》이 아니라?

혹시 지구온난화가 심술을 부리는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할수 있겠지만 그런것이 아닙니다.

이런 《북풍》은 날씨를 전문연구하는 기상청이 발표한 일기예보가 아니라 남자를 너자르, 너자르 남자로 만드는것외에는 다 조작해낼수 있다는 만능제작단으로 소문난 정보원이 발표한 정제해보입니다.

객관적자료와 과학적증거가 아니라 영터리추리와 입당한 정정으로서 저들의 함악이 맞게 가공된 열로당도않은 결과만을 내놓군 하여 정보원은 이미 남조선인민들로부터 신용을 단단히 잃었습니다. 이런 정보원이 떠드는 《북풍》이 과연 무엇일까요.

얼마전에 남조선에서는 《농업》(농업협동조합중앙회) 금융컴퓨터망체계가 최악의 마비사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는데 정보원은 이걸 돌동안 조사니 뉘니 하더니 결국은 또 《북풍》이 되었

면 될것 아닌가.》고 푸념질하더니 초보시위가 전지역으로 확산되자 《양조는 누구 돈으로 샀고 시위는 누가 주도했느냐.》고 따지고 듭니다.

너무 어이없어 10대의 소년들은 《배후엔 대통령이 있다.》고 야유하였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유모차부대》까지 시위에 나서자 급기야 《명박선성》을 쌓아놓고 물대포를 쏘아대며 군부독재시절의 《백골단》을

《북풍》이 없으면 변명할 구실이 없고 모면할 방법이 없는 모양입니다.

하기는 현 《정권》이 들어서서부터 오늘까지 어느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고 저들의 무능을 가리우자니 생각은 모자라지, 능력은 부족하지 그래서 고안해낸것이 《군사독재시대의 단골메뉴》인 《북풍》입니다.

물에 빠진자 지푸라기 잡는격입니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으로 남조선에서 100만 초보시위가 일어났을 때를 보십시오.

당국자란 사람이 미국대통령의 운전수첩까지 내며 소고기를 수입했지만 인민들은 그것을 신 강병이풀 그릇 보듯 했습니다.

그러자 보수집권세력은 저들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없으면 안사먹으

《북풍》이 없으면 권력 공격사건》때도 《북풍》, 2010년 미중유류의 사기극 합선침몰사건때도 《북풍》, 해마다 벌리는 동족침략의 핵전쟁연습구실도 바로 《북풍》입니다.

저들의 반민적악정으로 인민들이 아우성치면 《남남갈등》을 부추긴다고 《북풍》, 민주시위가 벌어지면 《안보위기》를 조장한다고 《북풍》, 조선반도의 정세긴장으로 외자가 빠져나가면 《경제위

《북풍》이 없으면 권력 공격사건》때도 《북풍》, 2010년 미중유류의 사기극 합선침몰사건때도 《북풍》, 해마다 벌리는 동족침략의 핵전쟁연습구실도 바로 《북풍》입니다.

저들의 반민적악정으로 인민들이 아우성치면 《남남갈등》을 부추긴다고 《북풍》, 민주시위가 벌어지면 《안보위기》를 조장한다고 《북풍》, 조선반도의 정세긴장으로 외자가 빠져나가면 《경제위

《북풍》이 없으면 권력 공격사건》때도 《북풍》, 2010년 미중유류의 사기극 합선침몰사건때도 《북풍》, 해마다 벌리는 동족침략의 핵전쟁연습구실도 바로 《북풍》입니다.

저들의 반민적악정으로 인민들이 아우성치면 《남남갈등》을 부추긴다고 《북풍》, 민주시위가 벌어지면 《안보위기》를 조장한다고 《북풍》, 조선반도의 정세긴장으로 외자가 빠져나가면 《경제위

《북풍》이 없으면 권력 공격사건》때도 《북풍》, 2010년 미중유류의 사기극 합선침몰사건때도 《북풍》, 해마다 벌리는 동족침략의 핵전쟁연습구실도 바로 《북풍》입니다.

저들의 반민적악정으로 인민들이 아우성치면 《남남갈등》을 부추긴다고 《북풍》, 민주시위가 벌어지면 《안보위기》를 조장한다고 《북풍》, 조선반도의 정세긴장으로 외자가 빠져나가면 《경제위

만필 《북풍》소동

《북풍》이 없으면 권력 공격사건》때도 《북풍》, 2010년 미중유류의 사기극 합선침몰사건때도 《북풍》, 해마다 벌리는 동족침략의 핵전쟁연습구실도 바로 《북풍》입니다.

저들의 반민적악정으로 인민들이 아우성치면 《남남갈등》을 부추긴다고 《북풍》, 민주시위가 벌어지면 《안보위기》를 조장한다고 《북풍》, 조선반도의 정세긴장으로 외자가 빠져나가면 《경제위

《북풍》이 없으면 권력 공격사건》때도 《북풍》, 2010년 미중유류의 사기극 합선침몰사건때도 《북풍》, 해마다 벌리는 동족침략의 핵전쟁연습구실도 바로 《북풍》입니다.

저들의 반민적악정으로 인민들이 아우성치면 《남남갈등》을 부추긴다고 《북풍》, 민주시위가 벌어지면 《안보위기》를 조장한다고 《북풍》, 조선반도의 정세긴장으로 외자가 빠져나가면 《경제위

《북풍》이 없으면 권력 공격사건》때도 《북풍》, 2010년 미중유류의 사기극 합선침몰사건때도 《북풍》, 해마다 벌리는 동족침략의 핵전쟁연습구실도 바로 《북풍》입니다.

저들의 반민적악정으로 인민들이 아우성치면 《남남갈등》을 부추긴다고 《북풍》, 민주시위가 벌어지면 《안보위기》를 조장한다고 《북풍》, 조선반도의 정세긴장으로 외자가 빠져나가면 《경제위

《북풍》이 없으면 권력 공격사건》때도 《북풍》, 2010년 미중유류의 사기극 합선침몰사건때도 《북풍》, 해마다 벌리는 동족침략의 핵전쟁연습구실도 바로 《북풍》입니다.

저들의 반민적악정으로 인민들이 아우성치면 《남남갈등》을 부추긴다고 《북풍》, 민주시위가 벌어지면 《안보위기》를 조장한다고 《북풍》, 조선반도의 정세긴장으로 외자가 빠져나가면 《경제위

《북풍》이 없으면 권력 공격사건》때도 《북풍》, 2010년 미중유류의 사기극 합선침몰사건때도 《북풍》, 해마다 벌리는 동족침략의 핵전쟁연습구실도 바로 《북풍》입니다.

저들의 반민적악정으로 인민들이 아우성치면 《남남갈등》을 부추긴다고 《북풍》, 민주시위가 벌어지면 《안보위기》를 조장한다고 《북풍》, 조선반도의 정세긴장으로 외자가 빠져나가면 《경제위

역적패당의 극악한 북남대결소동은 천추를 두고 응서받지 못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검열단 진상공개장 (3)

최근 리명박역도는 공개석상에서 《천안》호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북의 사과》가 없이는 북남사이에서 어떤 대화도 있을수 없으며 관계가 개선될수 없다는 망발을 꺼림없이 늘어놓았다.

이번 베를린행각때에도 제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사람들을 경악케 하는 주제넘은 악담질을 하였다.

청와대와 괴뢰통일부, 외교교통상부의 수급줄개들도 이에 맞장구치며 두 사건에 대한 《책임인정》과 《사과》를 받아내는것은 《부동의 원칙》이며 《이 문턱을 뛰어넘는》 대화는 그 어떤 경우에도 있을수 없다고 떠벌이 고있다.

괴뢰국방부 장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두 사건의 《도발원점》과 지원세력에 대한 그 무슨 《단호한 응징》을 서슴없이 내뿜고있다.

뿐아니라 《추모제》니, 《제막식》이니, 《기초식》이니 하는 광대극들이 벌어지고있는가

하면 두동강난 《천안》호 《참관》놀음이 진행되는 등 우리에 대한 적대감조성과 대결분위기가치가 극도에 이르고있다. 여기에 남조선내부에서 련이어 산생되고있는 각종 사건들까지 우리와 련제시킨 제3, 제4의 《천안》호사건이 들어 날조되어 북남관계를 수습할수 없는 파괴적위기로 몰아가고있다.

현 사태는 역적패당이야말로 북남관계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지독한 악질대결분자, 추악한 사대매국노, 악명높은 특등호전광무리라는것을 그대로 실증해 주고있다.

이미 두차례의 진상공개장을 발표하여 특대형모략구 《천안》호사건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과 연평도포격전의 흑막을 낱알이 발가놓은 우리 국방위원회검열단은 역적패당이 아직까지 시대착오적인 망상에 빠져 제3, 제4의 날조극을 꾸며내고있는 조건에서 그 불순한 기도를 세상에 다시금 까밝히게 된다.

저래는것은 《다리가 돌이던 다 사람》이라고 고집한 고대철학자의 궤변을 련상케 하는 너무나도 유치하고 저렬한 수법에 불과하다.

과학적빈곤과 무식으로 더 큰 망신을 당하지 않겠거든 다시는 《천안》호사건이 들어 날조되어 북남관계를 수습할수 없는 파괴적위기로 몰아가고있다.

넷째, 어뢰추진체의 출처에 대한 의혹은 남조선사회에서 더욱더 커지고있다.

어뢰추진체도 《천안》호침몰사건에 대한 《북관련설》의 결정적증거로 되고있다.

국소형파편까지 식별해내는 첨단탐지수단으로 장비된 수십척의 함선들이 50여일동안 찾아내지 못한것을 어디선가 문득 나타난 민간어선이나 고기잡이선에서 발견하였던 어뢰추진체는 한마디로 《의혹종잡체》이다.

어뢰폭발의 결과물이라는 판색혹착물질은 폭발과 전혀 관계없는 부식에 의한 결정질알루미늄으로 판명되고 어뢰추진체 《복의적》으로 립증하기 위해 어뢰설계도까지 여러차례 바꾸어대다가 폭로된것도 그러하지만 보다 큰 문제는 이 어뢰추진체의 출처이다.

어뢰추진체내부에서 발견된 꽃모양의 흰색물질이 붙어있는 조개껍질은 이것이 《천안》호사건이 발생되기 훨씬 이전부터 오랜 기간 바다물속에 있었다는 산 증거로 되었으며 뒤이어 발견된 붉은색물질은 조선동해에서만 서식하는 《붉은멍게》라는것이 판명되었다.

결국 명백해진것은 이 어뢰추진체가 《천안》호침몰과 무관한 결정적증거라는것뿐이다.

다섯째, 천둥에 의한 섬광이 결코 폭침에 의한 물기둥을 대신할수 없을것이다.

《천안》호침몰원인에 대한 《북 어뢰공격》의 증거로 《물기둥설》이 제기되자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것은 물기둥이 아닌 섬광이라는 주장이 더 많았기때문이다.

《물기둥설》은 그것이 어뢰공격에 의한 함선침몰이나 아닌가를 가르는 주요요인이었다.

사건발생초기 함선침몰수역 주변군무성원들과 생존자 58명의 진술을 종합한데 의하면 물기둥을 목격했다는 증인은 없었으며 《천안》호의 우현견시를 맡았던 생존사병도 침몰당시 물기둥같은것은 전혀 보지 못했다고 공개진술하였다.

뒤늦게 공개장소에 나타난 백령도의 한 감시병만이 《쿵》하는 소리를 듣고 해상전방 약 4km, 방위각 270 ° 방향에서 물기둥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였지만 해당 군무위에서 확증해본 결과 함선침몰장소와는 전혀 다른 곳으로서 그 누구의 강압에 의한 거짓진술로 략인되었다.

섬광이나, 물기둥이나 오락가락하는 속에 함선침몰당시를 기록한 군무일지가 공개되었다. 여기에는 사병이 보았다는 모양이 《V(우로 퍼지는)》자로 그려져있었다.

이것은 《U(우로 모아지는)》 모양의 통상적인 물기둥과 정반대인 천둥이나 벼락을 의미하는 것이다.

괴뢰들의 《북관련설》이 허위나 날조로 일관되었다는것을 보여주는 문헌들은 이밖에도 헤아릴수 없이 많다.

총적으로 괴뢰들이 내놓은 《북관련설》의 《결정적물증》들은 그 허위성을 폭로해주는 결정적증거물로 될뿐이다.

세界的 면전에서 생산된 특특히 당한 괴뢰들은 저지른 죄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제2의 《천안》호사건을 도발하는 길에 들어섰다.

그것이 바로 지난해 연평도포격도발이다.

당시 우리 군대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괴뢰침몰들은 2010년 11월 22일 조선서해 우리 측 수역에 대한 포사격계획을 꺼리낌없이 공포하였다.

다음날 아침 8시 우리 군대는 우리의 신성한 령해에 단 한발의 총포탄이라도 떨어지는 경우 즉시적인 물리적대응조치가 뒤따를것이며 그로부터 조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이라는것을 최종 통고하였다.

필요한 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남측이 우리를 걸고든것만큼 피해자로서의 초보적인 권리와 법적요구였다.

불가침에 관한 북남기본합의서 제2장 10조에도 쌍방사이에 발생하는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데 대하여 명백히 밝혀져있으며 부속합의서 2장 8조에 쌍방합의서를 위반하는 사건에 대해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지적되어있다.

괴뢰들이 사건을 진정으로 해명하려는 의도가 립끝만큼이라도 있었다면, 또 저들이 침몰사건을 날조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었을것이다.

그러나 괴뢰들은 이 사건조사에 《내의전문가가 참가하였다.》느니, 《공정성이 보장되었다.》느니 하는 일방적인 주장만격의 모든 현안문제들을 북남고위급군사회담에서 논의하자는 서한을 보내었다.

이것마저 거절하면 평화교란자, 대화거부자로서의 저들의 정체가 드러나는것이 두려워 괴뢰들은 벌수없이 북남고위급군사회담개최를 위한 예비회담에 끌려나오게 되었다. 하지만 회담장에서 놀아맨 괴뢰패거리들의 추태는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것이였다.

우리측이 회담의제를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진장상태를 해소할데 대하여 괴뢰들의 거부책동을 일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이 회담의제를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진장상태를 해소할데 대하여 괴뢰들의 거부책동을 일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이 회담의제를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진장상태를 해소할데 대하여 괴뢰들의 거부책동을 일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것을 제의하였다.

3. 새로 꾸며낸 제3의 날조극

동족대결분자들은 레외없이 모략날조의 능수능수이다.

그들에게는 대결을 합리화하고 조장확대하기 위한 구실이 끝없이 필요했었다.

청와대대입권을 따내기 바쁘게 북남관계를 대단식으로 악화시켜온 역적패당이 《천안》호침몰사건을 조작하여 전면적인 동족대결에 총돌일한 후 그것으로도 성취되지 않아 제2의 《천안》호사건 연평도포격도발을 감행하여 조선반도정세를 불라 불리 오가는 최악의 전쟁국면으로 전변시켰다는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역적패당은 동족대결의 범위를 정치, 군사분야만이 아닌 사회평형에까지 확대하기 위해 날조극들을 계속 꾸며내고있다.

괴뢰정보원과 검찰청은 지난해 7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의 기간 7차례 걸쳐 진행된 판문점 조미군부대파괴실무접촉에서 미군측이 보여준 자세는 너무나도 편견적이고 불순하였다.

미군측은 앞에서는 우리의 합리적인 제안과 문제해결방도에 관심을 이는것처럼 꾸며보이면서 뒤에서는 문제해결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시간을 끌었다는 가 하면 이 사건을 국제화하여 《북의 어뢰공격설》을 합리화해 보려고 책동하였다.

그러다가 우리 국방위원회검열단을 받아들이기 바쁘다면 《북관련설》을 확증하는데 리용된 증거물들을 판문점에 가지고나와 공동조사하자는 우리의 최종적인 요구를 더는 회피할수 없게 되자 끝내 접촉을 결렬시켰다.

결국 우리측이 내놓은 국방위원회검열단 파견제도의 북남고위급군사회담제안도 판문점 조미군 부장명급회담제안도 다 실현될수 없었다.

《천안》호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였으나 그 출로가 완전히 막혀버린 상태에서 우리 국방위원회검열단은 진상공개장을 통하여 이 사건이 철두철미 역적패당이 날조한 특대형모략구이라는것을 만천하에 폭로하였다.

역적패당이 제시한 증거란 《논형》 금융컴퓨터망체계공격에 사용된 인터넷주소가 우리 체신성의 주소와 동일하기때문이라는것이다.

또한 이 사건이 방대한 규모의 인적, 물적취반침이 없는 적용하기 어려운 높은 수준의 공격이며 그 수법도 치밀하고 정교한 원격조종방식에 따른것으로 하여 공격자가 전문사이버전부대로 추정되고 자료절취와 같은 《특정적》의 리익을 쟁기 위한 《공격》이 아니라 《무차별적인 파괴》를 목적한것이기때문에 《북의 소행》으로밖에 볼수 없다고 하였다.

괴뢰들은 특특한 증거도 없이 《북의 소행》으로 결론을 내린것이 쟁기는지 《북의 사이버테

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대화상대방을 심히 자극하지 못해 저들의 의제가 아니면 본회담을 개최할수 없다고 생각지를 부리다가 먼저 회담장에서 뛰쳐나갔다.

괴뢰들이 예비회담에 끌려나오는 데 회담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을 우리와 련제시키려는 오직 한가지 흥심때문이었다.

국제사회는 조선반도에서의 즉시적인 대화를 요구해나섰다.

시대의 요구와 민족의 지향에 무력대고 뻔쳐낼수 없게 된 괴뢰들은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 비핵화문제를 《대북대화재개의 3대조건》으로 내대면서 대화호름에 역행해나섰다.

《3대조건》이라는것이 곧 대화거부부 노린 고의적인 계획이었지만 우리 군대는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남측에 군사적성격의 모든 현안문제들을 북남고위급군사회담에서 논의하자는 서한을 보내었다.

이것마저 거절하면 평화교란자, 대화거부자로서의 저들의 정체가 드러나는것이 두려워 괴뢰들은 벌수없이 북남고위급군사회담개최를 위한 예비회담에 끌려나오게 되었다. 하지만 회담장에서 놀아맨 괴뢰패거리들의 추태는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것이였다.

우리측이 회담의제를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진장상태를 해소할데 대하여 괴뢰들의 거부책동을 일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이 회담의제를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진장상태를 해소할데 대하여 괴뢰들의 거부책동을 일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이 회담의제를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진장상태를 해소할데 대하여 괴뢰들의 거부책동을 일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이 회담의제를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진장상태를 해소할데 대하여 괴뢰들의 거부책동을 일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이 회담의제를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진장상태를 해소할데 대하여 괴뢰들의 거부책동을 일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이 회담의제를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진장상태를 해소할데 대하여 괴뢰들의 거부책동을 일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이 회담의제를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진장상태를 해소할데 대하여 괴뢰들의 거부책동을 일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이 회담의제를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진장상태를 해소할데 대하여 괴뢰들의 거부책동을 일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이 회담의제를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진장상태를 해소할데 대하여 괴뢰들의 거부책동을 일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이 회담의제를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진장상태를 해소할데 대하여 괴뢰들의 거부책동을 일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이 회담의제를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진장상태를 해소할데 대하여 괴뢰들의 거부책동을 일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이 회담의제를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진장상태를 해소할데 대하여 괴뢰들의 거부책동을 일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이 회담의제를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진장상태를 해소할데 대하여 괴뢰들의 거부책동을 일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이 회담의제를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진장상태를 해소할데 대하여 괴뢰들의 거부책동을 일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이 회담의제를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진장상태를 해소할데 대하여 괴뢰들의 거부책동을 일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이 회담의제를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진장상태를 해소할데 대하여 괴뢰들의 거부책동을 일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이 회담의제를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진장상태를 해소할데 대하여 괴뢰들의 거부책동을 일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이 회담의제를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진장상태를 해소할데 대하여 괴뢰들의 거부책동을 일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이 회담의제를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진장상태를 해소할데 대하여 괴뢰들의 거부책동을 일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이 회담의제를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진장상태를 해소할데 대하여 괴뢰들의 거부책동을 일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것을 제의하였다.

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대화상대방을 심히 자극하지 못해 저들의 의제가 아니면 본회담을 개최할수 없다고 생각지를 부리다가 먼저 회담장에서 뛰쳐나갔다.

괴뢰들이 예비회담에 끌려나오는 데 회담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을 우리와 련제시키려는 오직 한가지 흥심때문이었다.

국제사회는 조선반도에서의 즉시적인 대화를 요구해나섰다.

시대의 요구와 민족의 지향에 무력대고 뻔쳐낼수 없게 된 괴뢰들은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 비핵화문제를 《대북대화재개의 3대조건》으로 내대면서 대화호름에 역행해나섰다.

《3대조건》이라는것이 곧 대화거부부 노린 고의적인 계획이었지만 우리 군대는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남측에 군사적성격의 모든 현안문제들을 북남고위급군사회담에서 논의하자는 서한을 보내었다.

이것마저 거절하면 평화교란자, 대화거부자로서의 저들의 정체가 드러나는것이 두려워 괴뢰들은 벌수없이 북남고위급군사회담개최를 위한 예비회담에 끌려나오게 되었다. 하지만 회담장에서 놀아맨 괴뢰패거리들의 추태는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것이였다.

우리측이 회담의제를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진장상태를 해소할데 대하여 괴뢰들의 거부책동을 일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이 회담의제를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진장상태를 해소할데 대하여 괴뢰들의 거부책동을 일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이 회담의제를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진장상태를 해소할데 대하여 괴뢰들의 거부책동을 일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이 회담의제를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진장상태를 해소할데 대하여 괴뢰들의 거부책동을 일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이 회담의제를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진장상태를 해소할데 대하여 괴뢰들의 거부책동을 일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이 회담의제를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진장상태를 해소할데 대하여 괴뢰들의 거부책동을 일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이 회담의제를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진장상태를 해소할데 대하여 괴뢰들의 거부책동을 일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이 회담의제를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진장상태를 해소할데 대하여 괴뢰들의 거부책동을 일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이 회담의제를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진장상태를 해소할데 대하여 괴뢰들의 거부책동을 일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이 회담의제를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진장상태를 해소할데 대하여 괴뢰들의 거부책동을 일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이 회담의제를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진장상태를 해소할데 대하여 괴뢰들의 거부책동을 일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이 회담의제를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진장상태를 해소할데 대하여 괴뢰들의 거부책동을 일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이 회담의제를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진장상태를 해소할데 대하여 괴뢰들의 거부책동을 일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이 회담의제를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진장상태를 해소할데 대하여 괴뢰들의 거부책동을 일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이 회담의제를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진장상태를 해소할데 대하여 괴뢰들의 거부책동을 일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이 회담의제를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진장상태를 해소할데 대하여 괴뢰들의 거부책동을 일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이 회담의제를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진장상태를 해소할데 대하여 괴뢰들의 거부책동을 일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이 회담의제를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진장상태를 해소할데 대하여 괴뢰들의 거부책동을 일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이 회담의제를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진장상태를 해소할데 대하여 괴뢰들의 거부책동을 일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이 회담의제를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진장상태를 해소할데 대하여 괴뢰들의 거부책동을 일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것을 제의하였다.

상이 아닌 수중에서, 한낱이 아닌 밤중에 사건을 날조하였다.

이제 물로 바쳐진것은 46명의 무고한 사병들의 목숨이었다.

이번 《논형》 금융컴퓨터망마비사태의 《북의 소행설》은 안으로는 지난 4.27보충선거에서 반인민적악정을 단죄하는 민심의 분노에 의해 대담패를 당한 책임을 놓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에서 개싸움이 벌어지고 밖으로는 조선반도주변국들의 대화요구를 거부하기 위한 술책이 모색되고있는것과 매를 같이하였다.

《북의 소행설》의 제물로 《논형》 금융업체가 선택된것은 집권기간 초래된 민생파탄, 빈부격차의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려는 역도특유의 교묘한 기도와 관련된다.

《논형》 금융컴퓨터망마비사태는 한마디로 《천안》호사건의 재판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 이번 사건을 동족대결을 위한 새로운 제3의 날조극으로 략인하여 자유와 조소, 비난과 규탄을 퍼붓고있는것은 응당하다.

이번에 커다란 피해를 당한 《논형》 당사자들은 《북의 소행》이라고 밀몰아붙인 괴뢰당국의 발표가 과학성이 없는 《서부른 결론》이라고 항변해나서 괴뢰군기무사마져 벌어진 사태를 《북군부의 공격》으로 밀어붙일수 없다고 공식 발표하고있다.

특히 민간에서는 지난해 《천안》호를 침몰시켰다는 어뢰추진체에 《1번》이라는 글자가 씌여졌으며 《북관련설》을 주장하였는데 이번 공격에 동원된 인터넷주소에는 《1》이 몇개나 더 붙어있는가고 쓴웃음을 보이고있다.

오죽하면 해당 전문가들이 원래 5차원공간을 리용하여 주로 자기를 로출시키지 않고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나온 특수한탄도의 교전방식인 싸이버전에 대한 초보적인 개념도 없다보니 괴뢰수사팀이 황당무체한 근거와 주장으로 《북의 소행》을 립증시키려 했다고 핀잔하고있겠는가.

제 집안에서까지 새로운 의혹의 대상으로 된 《북의 소행설》을 내 놓고 현재 괴뢰들은 재래식전쟁을 통가하는 싸이버테로에 대비한다는 《다각적대응체계구축》의 미명하에 괴뢰국방부에 싸이버사령부를 발족시킨다 언젠가 하며 북대소동을 피우고있다.

제반 사실은 《천안》호사건을 조작한 역적패당이 《북관련설》을 계속 내뿜리며 북남대결책동에 광분하고있는 한 일로 제3, 제5의 반공화국모략구이 계속 날조될수 있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모략구날조의 책임을 느끼고 사회할 대신 동족대결을 한사코 고수해보려는 불순한 기도밑에 반공화국응모들을 련이어 꾸며내고있는 괴뢰들의 책동을 거부서버리는것은 우리 민족과 세계평화에호인민들의 공동된 의무이며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논형》 금융컴퓨터망마비사태의 《북의 소행설》은 모략이 만천하에 폭로되어 거덜이 날대로 난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에 이은 또 하나의 새로운 날조극이다.

이 사건은 분야가 다를뿐 그 동기와 수법에 있어서 《천안》호사건과 일맥상통하다고 말할수 있다.

《천안》호사건발생은 미국의 남조선영구강점명분을 마련하여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연기하기 위한 파격적인 《안보불안》조성이 절실한것과 매를 같이하였다.

그 수법도 모략구의 체계를 영원히 흑막속에 덮어버리기 위해 사건해명에 불리한 장소와 시간 즉 공해가 아닌 령해에서, 수

《논형》 금융컴퓨터망체계공격에 사용된 인터넷주소가 우리 체신성의 주소와 동일하기때문이라는것이다.

또한 이 사건이 방대한 규모의 인적, 물적취반침이 없는 적용하기 어려운 높은 수준의 공격이며 그 수법도 치밀하고 정교한 원격조종방식에 따른것으로 하여 공격자가 전문사이버전부대로 추정되고 자료절취와 같은 《특정적》의 리익을 쟁기 위한 《공격》이 아니라 《무차별적인 파괴》를 목적한것이기때문에 《북의 소행》으로밖에 볼수 없다고 하였다.

괴뢰들은 특특한 증거도 없이 《북의 소행》으로 결론을 내린것이 쟁기는지 《북의 사이버테

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대화상대방을 심히 자극하지 못해 저들의 의제가 아니면 본회담을 개최할수 없다고 생각지를 부리다가 먼저 회담장에서 뛰쳐나갔다.

괴뢰들이 예비회담에 끌려나오는 데 회담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을 우리와 련제시키려는 오직 한가지 흥심때문이었다.

국제사회는 조선반도에서의 즉시적인 대화를 요구해나섰다.

시대의 요구와 민족의 지향에 무력대고 뻔쳐낼수 없게 된 괴뢰들은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 비핵화문제를 《대북대화재개의 3대조건》으로 내대면서 대화호름에 역행해나섰다.

《3대조건》이라는것이 곧 대화거부부 노린 고의적인 계획이었지만 우리 군대는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남측에 군사적성격의 모든 현안문제들을 북남고위급군사회담에서 논의하자는 서한을 보내었다.

이것마저 거절하면 평화교란자, 대화거부자로서의 저들의 정체가 드러나는것이 두려워 괴뢰들은 벌수없이 북남고위급군사회담개최를 위한 예비회담에 끌려나오게 되었다. 하지만 회담장에서 놀아맨 괴뢰패거리들의 추태는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것이였다.

우리측이 회담의제를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진장상태를 해소할데 대하여 괴뢰들의 거부책동을 일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것을 제의하였다.

(5면으로 계속)

들끓는 현실을 화폭에 담아

— 송화미술전람회장을 찾아서 —

얼마전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송화미술전람회가 진행되었다. 근 한달동안 수많은 미술전문가들과 미술애호가들의 기대와 관심속에 성황을 이룬 이번 송화미술전람회에는 50여점의 우수한 작품들이 출품되어 인기를 끌었다.

이번 송화미술전람회는 인기가 많은 미술가들이 청춘의 기백과 열정에 넘쳐 날이 변모되는 공화국의 현실을 다양하면서도 생동하고 진실하게 형상화한 것으로

하여 어느 작품이나 다 인상깊었다.

그중에서도 절세의 위인을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공기와 자부심, 어머니수령님을 그리며 겨레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형상한 아크릴화 《영생하는 모습》, 《한국의 풍경화를 놓고도》를 비롯한 많은 작품들은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끝없이

종모하고 따르는 인민들의 충정의 마음을 선명하고 섬세하면서도 간결한 필치로 높은 예술적수준에서 형상한 조선화 《전선길의 아침》, 《혁명전적지 연암서두수급류》와 유화 《최현발전소》, 《대동강반의 새 모습》, 《친정집》, 《영광의 일터에서》, 《미곡현뎐별》 등 많은 작품들은 탁월한 선공령도로 인민에 대한 사랑의 대화원을 펼쳐가시는 장군님의

령도로 오래전부터 바라오던 인민의 꿈과 이상이 찬란히 꽃피어나고있는 오늘의 자랑스런 현실을 잘 보여주었다.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실현에 한평생을 바쳐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절절히 그리며 겨레의 마음을 충성스럽게 유화 《우리러 추억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없이 승민한 경지로 이끌어가며 내외반통일세력들의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6.15공

동선언이 밝혀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따라 통일의 대문을 활짝 열어갈 불같은 맹세로 가슴깊이 새겼다.

참으로 미술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기대와 관심속에 진행된 이번 송화미술전람회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강성대국을 향한 총공격을 벌려나가는 천만군민의 역센 신념과 의지, 더욱 좋아질 래일에 대한 확신을 훌륭한 예술적화폭으로 잘 보여주었다.

본사기자 박원평

우리 민족의 차문화 (3)

조선민족의 차마시는 풍습은 세나라시기를 거쳐 발해와 후기신라시기에 이어졌다.

6세기중엽이후 지리산에는 수많은 차밭이 생겨 차생산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신라에서는 불교승려들만이 아니라 선비를 비롯한 일반사람들도 차를 많이 마시었는데 그것은 실종의 작품 《화왕계》를 통하여 잘 알 수 있다.

신문왕의 청탁으로 창작된 작품의 내용인즉 꽃중의 왕인 모란꽃에게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찾아와서 유혹을 하는데 그가온데는 요염한 장미꽃과 아몬드꽃이 아니라 총직한 할미꽃이 있었다. 아름다운 장미꽃은 자기가 대왕을 모시겠다고 야망을 펼쳤다. 할미꽃은 벼에 가득떠들며 머리카락도 백발이며 게다가 지팡이까지 지니고 있었다. 할미꽃은 아무리 공계(공급)가 충족하여 기름진 음식으로 배를 불리고 차와 술로 심신을 맑게 하며 상자가 의복을 채운다고 해도 좋은 약으로 원기를 돋우며 독한 약으로 병을 없애야 한다고 말하였다.

옆에서 말하기를 들은 왕이서서서 하나만 택해야 한다고 하였다. 모란꽃이 《할미꽃의 말은 일리가 있으나 어여쁜 너저는 언기가 힘들것이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고 하자 할미꽃은 《임금이 사모치고 간사한자를 가까이하고 정직한자를 멀리하지 않은자가 없으니 닌들 어찌하겠는가.》고 탄식하였다. 이 말을 들은 모란꽃은 《내가 잘못했소. 내가 잘못했소!》라고 하며 할

미꽃을 택하였다는 것이다. 실종의 이야기는 다 듣고 신문왕은 《그대가 비유한 이야기는 참으로 뜻이 깊고 의미심장하다. 이를 기록하여 임금원자들로 하여금 경계로 삼게 하여라.》라고 하였다고 한다.

신문왕통치시기는 후기신라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실종이 《화왕계》에서 《차와 술로 정신을 맑게 한다.》고 한것은 당시 사람들이 차를 맑은 정신을 가지게 하는 중요한 건강요로 여겼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삼국유사》(권3 람과 불상)에는 《명주오대산과 출도태자전기》라는 글이 실려있다. 신라의 태자형제가 강원도 오대산에 놀러 갔었는데 그곳에서 부처에게 차를 공양한 사실을 적은 이야기이다.

태화원년(827년) 8월 5일 신라의 태자와 그 동생은 오대산에 입산하여 각자가 암자를 짓고 살면서 매일 아침 술로 심신을 맑게 하며 상자가 의복을 채운다고 해도 좋은 약으로 원기를 돋우며 독한 약으로 병을 없애야 한다고 말하였다.

옆에서 말하기를 들은 왕이서서서 하나만 택해야 한다고 하였다. 모란꽃이 《할미꽃의 말은 일리가 있으나 어여쁜 너저는 언기가 힘들것이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고 하자 할미꽃은 《임금이 사모치고 간사한자를 가까이하고 정직한자를 멀리하지 않은자가 없으니 닌들 어찌하겠는가.》고 탄식하였다. 이 말을 들은 모란꽃은 《내가 잘못했소. 내가 잘못했소!》라고 하며 할

해온다. (리규보의 《남행일필집》)

보통 해동(조선)화엄종불교창시자의 한사람(또 한사람은 의상)으로 알려져 있다.

유명한 학자인 최치원(857-?)이 봉교관(임금의 지시를 받들고 편찬하였다는)한 《무염화상비명》에는 임금이 고승들에게 향기로운 일동품차를 선물로 내려보내준데 대하여 기록하고있다.

12살에 중국에 건너가서 공부해 하여 높은 벼슬을 한 최치원은 차를 즐겨마셨다고 한다. 최치원은 신라사람들이 중국과의 차무역을 진행한 사실도 전하고있다. 신라사람들은 지리산에서 나는 차뿐만아니라 외국의 차도 수입하여공하여 판매함으로써 큰리득을 보았다. 당시 차는 국제적무역품으로 거래되던 하는 약재품이었던것이다.

신라에서의 차는 불교를 공양하는 승려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화랑이라고 불리우는 무사들도 차를 마시고 심신을 맑게 하였고 풍류를 즐기었다고 한다.

이렇듯 발해와 신라에서 차마시는 풍습은 많은 사람들속에서 보급되고있었으며 세나라시기때부터 면면히 계속되어오면서 하나의 풍습으로 고착화되였다.

하지만 이 시기까지만 해도 차는 왕후장상을 비롯한 귀족층들과 불교승려들속에 한정되어있었다. 가이한 계층속에 차마시는 풍습이 널리 보급된것은 고려시기부터였다.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소장 교수, 박사 조희승

우리 민족의 자랑

리조자기는 발전사적으로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볼수 있다. 전기는 15~16세기로서 주로 고려청자기를 계승한 리조청자기와 순백자기, 분장자기가 많이 제작된 시기이고 중기는 17~18세기 초엽으로서 순백자기, 청화백자기, 진홍백자기, 석간주백자기, 검은자기, 잡유자기들이 다양하게 제작된 시기이며 후기는 18세기 초엽부터 19세기 말엽까지로서 청화백자기 특이히 발전한 시기로 특징지어진다.

리조전반기에 놀랄만큼 다채롭게 발전한것은 고려후반기부터 창조된 분장자기이다.

분장자기의 특징은 백토로써 그릇겉면을 바르거나 문

소박한 감정과 정서가 그대로 표출되어있다.

리조자가운데서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백자기이다. 고려자기가 청자기로 명성을 떨쳤다면 리조자기는 백자기로 세상에 알려졌고 현대에 와서도 국제

같은 문양을 회화적으로 새기고 붉은 흙을 박아 검은색 문양을 나타낸 삼갈백자기, 그릇표면에 푸른색안료로 그림을 그리고 그우에 장식물 주원료로 하는 회고 투명한 유약을 적은 청화백자기, 그릇표면을 산화철이 많이 포

고려자기와 함께 이름난 리조자기

양을 표현하고 재색이나 재빛도는 검은색 또는 재빛도는 푸른색유약을 발라 변화무쌍한 장식적효과를 나타낸것이다. 분장자기에는 우리 민족의 활달하고 락천적이고

적으로 《백자기로서는 최상의것》, 《백자기가운데 아름다운의 극치를 이룬다.》는 평을 받고있다.

리조백자기에는 아무런 문양장식도 없는 순백자기, 꽃

함된 안료로 장식한 석간주백자기, 그릇표면에 옥청(공작석)이라는 동의 산화물로 문양을 그린 진홍백자기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리조자기의 일반적특징은 우선 형태와 종류가 종래의 어느 시기의 자기보다 다양한것이다. 리조자기는 식기류, 문방구류, 화장용품류, 실내용기류, 제사그릇, 건 축용재류 등 그 가지수가 100여가지나 된다.

리조자기는 또한 소박하면서도 실용적이다. 리조자기는 어디까지나 실지 쓰는 사람들의 생활상편의를 충 분히 참작하여 풍부한 량감을 가지고 두껍하고 진실한 맛을 돋우도록 제작되었다. 그릇의 형태선들은 곡직곡



만수대장작사에서 장작한 청자기와 백자기의 일부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삼천리금수강산이라 일컫는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독자적인 꽃문화를 창조하였다.

《삼국사기》에는 고려시기에 메화를 가꾸었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와 리조시기에는 꽃을 민간에서도 많이 가꾸었다. 여름철이면 우리 녀성들은 봉선화꽃을 짓궂어 손톱에 물을 들였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자료에 의하면 세나라시기에는 사람이나 존경의 표시로 꽃을 꺾어주는 풍습이 있었다. 고려시기에는 꽃을 관상용으로 병에 꽂거나 머리와 모자, 옷 등에 장식했다. 리조시기에는 꽃이 남녀간의 정을 표시하는데도 쓰여졌다.

꽃을 사랑해온 우리 민족은 꽃의 상징적의미를 귀중히 여기었다. 집이나 가축들끼리 기쁨을 줄일 때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그 집에 꽃이 피었다.》고 하였으며 젊음과 아름다움을 두고 《꽃같은 시절》이라고 하였다.

우리 민족은 자기의 고향산천에 피어나는 꽃을 사랑하였다. 한 고려사람은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요염한 꽃보다 산속에서 저절로 피어나는 평범한 꽃이 더 아름답다고 하였다.

리조초기에 이름난 미술가들이 꽃이 지닌 상징적의미에 따라 서렬을 정하였는데 40여가지의 꽃을 9등급으로 나누면서 매화, 국화 등을 1등급으로 평가하였다. 그것은 눈서리를 맞아서도 시들지 않는 국화 등이 우리 민족의 고상한 정감을 상징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도덕의 리심을 귀중히 여기고 참된 인생을 넘원해온 우리 민족은 이처럼 독특 한 꽃문화를 빚어냈다.

본사기자

《그 집에 꽃이 피었다.》고 하였으며 젊음과 아름다움을 두고 《꽃같은 시절》이라고 하였다.

우리 민족은 자기의 고향산천에 피어나는 꽃을 사랑하였다. 한 고려사람은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요염한 꽃보다 산속에서 저절로 피어나는 평범한 꽃이 더 아름답다고 하였다.

리조초기에 이름난 미술가들이 꽃이 지닌 상징적의미에 따라 서렬을 정하였는데 40여가지의 꽃을 9등급으로 나누면서 매화, 국화 등을 1등급으로 평가하였다. 그것은 눈서리를 맞아서도 시들지 않는 국화 등이 우리 민족의 고상한 정감을 상징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도덕의 리심을 귀중히 여기고 참된 인생을 넘원해온 우리 민족은 이처럼 독특 한 꽃문화를 빚어냈다.

본사기자

《삼국사기》에는 고려시기에 메화를 가꾸었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와 리조시기에는 꽃을 민간에서도 많이 가꾸었다. 여름철이면 우리 녀성들은 봉선화꽃을 짓궂어 손톱에 물을 들였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자료에 의하면 세나라시기에는 사람이나 존경의 표시로 꽃을 꺾어주는 풍습이 있었다. 고려시기에는 꽃을 관상용으로 병에 꽂거나 머리와 모자, 옷 등에 장식했다. 리조시기에는 꽃이 남녀간의 정을 표시하는데도 쓰여졌다.

꽃을 사랑해온 우리 민족은 꽃의 상징적의미를 귀중히 여기었다. 집이나 가축들끼리 기쁨을 줄일 때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그 집에 꽃이 피었다.》고 하였으며 젊음과 아름다움을 두고 《꽃같은 시절》이라고 하였다.

우리 민족은 자기의 고향산천에 피어나는 꽃을 사랑하였다. 한 고려사람은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요염한 꽃보다 산속에서 저절로 피어나는 평범한 꽃이 더 아름답다고 하였다.

리조초기에 이름난 미술가들이 꽃이 지닌 상징적의미에 따라 서렬을 정하였는데 40여가지의 꽃을 9등급으로 나누면서 매화, 국화 등을 1등급으로 평가하였다. 그것은 눈서리를 맞아서도 시들지 않는 국화 등이 우리 민족의 고상한 정감을 상징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도덕의 리심을 귀중히 여기고 참된 인생을 넘원해온 우리 민족은 이처럼 독특 한 꽃문화를 빚어냈다.

본사기자

《삼국사기》에는 고려시기에 메화를 가꾸었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와 리조시기에는 꽃을 민간에서도 많이 가꾸었다. 여름철이면 우리 녀성들은 봉선화꽃을 짓궂어 손톱에 물을 들였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자료에 의하면 세나라시기에는 사람이나 존경의 표시로 꽃을 꺾어주는 풍습이 있었다. 고려시기에는 꽃을 관상용으로 병에 꽂거나 머리와 모자, 옷 등에 장식했다. 리조시기에는 꽃이 남녀간의 정을 표시하는데도 쓰여졌다.

꽃을 사랑해온 우리 민족은 꽃의 상징적의미를 귀중히 여기었다. 집이나 가축들끼리 기쁨을 줄일 때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그 집에 꽃이 피었다.》고 하였으며 젊음과 아름다움을 두고 《꽃같은 시절》이라고 하였다.

우리 민족은 자기의 고향산천에 피어나는 꽃을 사랑하였다. 한 고려사람은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요염한 꽃보다 산속에서 저절로 피어나는 평범한 꽃이 더 아름답다고 하였다.

리조초기에 이름난 미술가들이 꽃이 지닌 상징적의미에 따라 서렬을 정하였는데 40여가지의 꽃을 9등급으로 나누면서 매화, 국화 등을 1등급으로 평가하였다. 그것은 눈서리를 맞아서도 시들지 않는 국화 등이 우리 민족의 고상한 정감을 상징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도덕의 리심을 귀중히 여기고 참된 인생을 넘원해온 우리 민족은 이처럼 독특 한 꽃문화를 빚어냈다.

본사기자

신운복의 작품 《주막》

화법적특성을 잘 살려 주막 집의 전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조선화 《주막》은 당시

화자들이 관심밖에 두었던 서민들의 생활을 생동한 화폭으로 반영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동정을 표시하였으며 생활풍속을 잘 묘사하여 사실주의적인 인물풍속화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지금으로부터 66년전 미제는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떨구었다. 그것이 터질 때 나온 방사선의 피해는 수십년나마 지속되어 오늘까지도 그 후파로 기형아들이 생겨나고있으며 여러가지 질병환자들과 암환자들이 계속 발생하고있다. 그런데 당시 원자탄피해자들을 치료하는데 동원되었던 한 의사와 그의 함께 일하던 간호원들속에서는 수십년이 흘렀어도 원자탄피해환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수승게기같이 의사는 그때 자기가 무엇을 먹으며 일하였는가 곰곰히 회고하였다. 당시 이들은 병문간들이 파괴된탓에 식료품장고에 들어가 환자들을 치료하였

된장의 항방사능효과

된장이 방사선의 피해를 막는다고 하면 사람들은 잘 믿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이다.

지금으로부터 66년전 미제는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떨구었다. 그것이 터질 때 나온 방사선의 피해는 수십년나마 지속되어 오늘까지도 그 후파로 기형아들이 생겨나고있으며 여러가지 질병환자들과 암환자들이 계속 발생하고있다. 그런데 당시 원자탄피해자들을 치료하는데 동원되었던 한 의사와 그의 함께 일하던 간호원들속에서는 수십년이 흘렀어도 원자탄피해환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수승게기같이 의사는 그때 자기가 무엇을 먹으며 일하였는가 곰곰히 회고하였다. 당시 이들은 병문간들이 파괴된탓에 식료품장고에 들어가 환자들을 치료하였

는데 그 창고에는 된장과 미역, 현미 등이 들어있었다. 하여 하루 세기 현미밥에 미역된장국을 끓여먹으며 치료하였다.

그후 이 의사는 자기와 간호원들이 미역된장국을 먹었기때문에 원자탄피해환상이 나타나지 않은것으로 추측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많은 과학자들이 된장국이 방사선피해를 어떻게 막는가를 연구하게 되었다.

결과 된장을 먹으면 밖에 서부터 쪼여지는 방사선의 피해를 막을뿐아니라 몸에 들어온 방사성물질을 몸밖으로 배보내는 항방사능작용을 한다는것이 밝혀졌다.

최근년간에 와서 된장냄새조차 싫어하던 유럽사람들도 된장섭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된장을 먹고있다고 한다.

본사기자

단편소설

녀교수의 증언 (8)

김일순은 평생 어진척 없는 일파대로 계획된 강의와 연구생활의 실험실습을 지도했다. 그의 주위에 학도열에 불타는 수십명의 동자들이 따른다. 전자현미경을 통하여 펼쳐지는 세포공학의 세계, 유전자들의 운동과 각이한 형태의 변이현상... 소용마이크를 손에 든 김일순은 TV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보십시오. 그 어느 생명체는 환경의 지배를 받기 마련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지구의 력사가 말해주며 오늘날 우리가 찾아낸 공룡과 털코끼리화석이 증명합니다. 환경의 지배속에서 생명체는 종의 보존과 증식을 위한 변이를 일으키는데 그것이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됨으로써만 종의 보존과 증식이 가능하고 불리한 변이현상은 소멸합니다.》

이때 문밖에서 청높은 소리가 울린다.

《물 들어갑니다. 선생님 은 강의중입니다.》

어느 학생인가가 지키고있던 모양이다. 귀에 익은 목소리다. 김일순은 정확한 기억력으로 그 학생이 누구라는것을 알아냈다. 남에 돌아와 강의를 하던 날 강의실에서 정치문제를 논하여 쫓겨났던 학생이다.

《우리는 교수선생을 꼭 만나야 합니다. 만나서 우리 단체의 의사를 권고하자는겁니다.》

《강의시간에는 절대로 안됩니다.》

《우리는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우리 말을 들어서 교수선생이 나불한것이 없기에 이렇게 하는겁니다.》

김일순은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는가를 짐작할수 있었다. 이 땅에는 아래우도, 설차라, 앓을자리도 가려보지 못하는 무리하고 분별없는 단체와 그런 명목들 편어진 생명체는 제면의 본능

적인 방위력을 가지고있습니다.》

김일순의 강의는 청강생들의 가벼운 웃음으로 더욱 활기있게 계속되었다.

불청객들은 세포공학의 권위있는 학자가 란장관이 된 강의실에서 당황해하는 모습을 찍어가려고 왔다가 오히려 난감해했다.

《교수선생, 래일 우리 협회에 와주십시오. 귀빈으로 맞겠습니다.》

체면을 지키려고 마지막으 로 내든 주매장마저 일순은 가볍게 물리쳤다.

《기다리지 마세요. 그 시간에 나는 《청와대》에 가 있을테니까요.》

학생들은 부르러운 언어로 조화된 스승의 도교한 기상에 박수까지 쳤다.

《교수선생, 당신을 두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름난 세포공학자라고 하겠지요.》

《《한국》 학계의 마녀라고 합니다.》

《교작해서 그건가요? (정부) 가 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 나는 마녀가 아니라 마귀왕이 될수도 있어요.》

불청객들은 어쩔수 없는

상대에서 씨근씨근 제풀에 화를 내다가 물러가버렸다.

강의를 계속하면서 김일순은 생명세포공학의 전망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펼쳐보이면서 이렇게 말했다.

《학생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민족구성원으로 개개게 변하지 않으면서 지구성을 가진 훌륭한 유전자들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청강생들은 김일순의 진심의 부락을 들으며 감격을 금

그는 사뭇 경건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 을 존경합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모두가 일어서서 박수를 보낸다. 별 같이 빛나는 눈동자들, 이들에 의하여 민족의 장래는 밝은것이다.

크지 않는 박수속에 김일순은 깊이 허허속어 인사했다.

류다란 감회를 자아낸 하 루도 저문다.

실�험실에 혼자 남아 자기의 연구자료들을 검토하고 있던 김일순은 문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학생들을 데

《선생님, 저희들은 오늘 저녁 선생님을 위해 야회를 마련했습니다.》

학생의 정다운 목소리에 울고웃으며 김일순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겠어요.》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싶습니다.》

《지금 가야 하나요?》

《네.》

《잠깐, 내 한가지 일을 할게 있어요. 별로 큰것은 아니지만, 편지를 쓰면 돼요.》

김일순은 책상에 앉아 편지를 썼다. 그리고는 그것을 학생에게 보냈다. 학생은 그 편지를 읽었다.

《《청와대》 앞.》

《대통령》 각하, 6.15정신은 우리 민족의 통일애국정신이며 시대의 지향입니다. 독재의 언체를 아무리 높이 쌓는다고 해도 분단력사를 끝장내려는 민중의 거세찬 대하를 가두지 못합니다. 나는 과학자로서 각하게 정중히 권고합니다. 어느 군주도 대통령도 황제도 민족보다 오래 살지 못했고 살수 없다는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끝)

《선생님, 저희들은 오늘 저녁 선생님을 위해 야회를 마련했습니다.》

학생의 정다운 목소리에 울고웃으며 김일순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겠어요.》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싶습니다.》

《지금 가야 하나요?》

《네.》

《잠깐, 내 한가지 일을 할게 있어요. 별로 큰것은 아니지만, 편지를 쓰면 돼요.》

김일순은 책상에 앉아 편지를 썼다. 그리고는 그것을 학생에게 보냈다. 학생은 그 편지를 읽었다.

《《청와대》 앞.》

《대통령》 각하, 6.15정신은 우리 민족의 통일애국정신이며 시대의 지향입니다. 독재의 언체를 아무리 높이 쌓는다고 해도 분단력사를 끝장내려는 민중의 거세찬 대하를 가두지 못합니다. 나는 과학자로서 각하게 정중히 권고합니다. 어느 군주도 대통령도 황제도 민족보다 오래 살지 못했고 살수 없다는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끝)